WEBVTT

00:00:10.076 --> 00:00:11.258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358 --> 00:00:12.489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589 --> 00:00:14.693
오늘 이 시간에는 소설
세 번째 시간입니다.

00:00:14.793 --> 00:00:17.376
시점과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.

00:00:17.476 --> 00:00:19.350
너무너무 시험에 잘
나옵니다, 여러분.

00:00:19.450 --> 00:00:21.384
시점과 서술 방식이라고 하면,

00:00:21.484 --> 00:00:23.923
시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
네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.

00:00:24.023 --> 00:00:28.720
1인칭 주인공, 관찰자, 그다음에
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,

00:00:28.820 --> 00:00:31.150
그다음에 관찰자 이렇게
전부 다 알고 있는데.

00:00:31.250 --> 00:00:35.754
실제 시험에서는 이 시점이 다양하게
변화돼서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.

00:00:35.854 --> 00:00:38.869
제가 설명드리는 이
내용하고 조금 더 덧붙여서

00:00:38.969 --> 00:00:40.661
선생님이 말씀드릴 테니까요.

00:00:40.761 --> 00:00:43.809
그 내용들 어떻게 나타나는지
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

00:00:43.909 --> 00:00:47.669
시점의 종류는 서술자의
위치에 따라 달라져요.

00:00:47.769 --> 00:00:50.445
그러니까 작품 내에 있으면
1인칭 시점이겠고,

00:00:50.545 --> 00:00:54.280
작품 바깥에 있으면 3인칭 시점,
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죠.

00:00:54.380 --> 00:00:57.602
시점의 차이에 따라 서술 효과도
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

00:00:57.702 --> 00:01:00.107
글씨가 좀 작은데,
여러분 책을 보시면요.

00:01:00.207 --> 00:01:03.593
책의 내용을 선생님이 그대로 옮겨놔서
압축적으로 글씨가 좀 작습니다.

00:01:03.693 --> 00:01:04.796
보겠습니다.

00:01:04.896 --> 00:01:06.371
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.

00:01:06.471 --> 00:01:08.817
작품 안의 주인공인 나 자신의
이야기를 서술하는 게

00:01:08.917 --> 00:01:10.288
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.

00:01:10.388 --> 00:01:12.696
당연히 내면을 드러내는
데 적절하겠죠.

00:01:12.796 --> 00:01:15.686
주인공의 내면 드러내는 데
적절하고, 친근감을 주고,

00:01:15.786 --> 00:01:18.309
독자가 인물의 심리에
공감하기 쉬워집니다.

00:01:18.409 --> 00:01:21.106
작품 안의 다른 인물이나
사건을 서술하는 데에

00:01:21.206 --> 00:01:22.750
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

00:01:22.850 --> 00:01:26.367
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
바로 뭐냐면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

00:01:26.467 --> 00:01:28.632
그 다른 사람의 심리를
다 알 수 없잖아요.

00:01:28.732 --> 00:01:31.217
다 알 수 있는 건 전지적
작가 시점밖에 없죠.

00:01:31.317 --> 00:01:33.454
그러니까 당연히 제약이
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

00:01:33.554 --> 00:01:37.027
그다음에 관찰자 시점은 작품
안의 부수적 인물인 '나'가

00:01:37.127 --> 00:01:40.348
관찰자로 등장해서 주인공에 대한
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.

00:01:40.448 --> 00:01:43.195
관찰자인 나의 눈에 보이는
인물과 사건에 대해서만

00:01:43.295 --> 00:01:47.126
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
심리를 드러내기가 당연히 어렵죠.

00:01:47.226 --> 00:01:50.147
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
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,

00:01:50.247 --> 00:01:53.477
독자가 오히려 상상력을
좀 많이 발휘해야 되는

00:01:53.577 --> 00:01:56.102
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.

00:01:56.202 --> 00:01:58.034
작가 관찰자 시점인데요.

00:01:58.134 --> 00:02:01.724
제3의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
관찰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.

00:02:01.824 --> 00:02:05.093
객관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
독자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

00:02:05.193 --> 00:02:07.489
상상할 수 있는
긍정적인 면도 있죠.

00:02:07.589 --> 00:02:10.567
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
전지전능한 입장에서

00:02:10.667 --> 00:02:13.471
인물의 심리나 사건을 모두
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

00:02:13.571 --> 00:02:17.104
사건뿐만 아니라 인물의
심리까지 모두 서술하므로

00:02:17.204 --> 00:02:19.072
독자의 상상에 제한이
있을 수밖에 없죠.

00:02:19.172 --> 00:02:20.848
왜?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.

00:02:20.948 --> 00:02:22.889
그러니까 제약이 있을
수밖에 없고요.

00:02:22.989 --> 00:02:25.690
서술자가 모든 것을 알고
있으므로 이야기에 대해서

00:02:25.790 --> 00:02:27.434
평가를 하기도 합니다.

00:02:27.534 --> 00:02:31.075
여러분, 이 내용을 잠깐만
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.

00:02:31.175 --> 00:02:34.260
이쪽으로 오시면 전지적 작가
시점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.

00:02:34.360 --> 00:02:43.950
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
하는 게 있어요.

00:02:44.050 --> 00:02:47.397
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은
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걸

00:02:47.497 --> 00:02:49.473
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.

00:02:49.573 --> 00:02:54.113
작가가 있겠죠, 작가가 있고,
그다음에 서술자가 있어요.

00:02:54.213 --> 00:02:57.613
서술자는 전지적인
입장에서의 서술자겠죠?

00:02:57.713 --> 00:02:58.859
작품 바깥입니다.

00:02:58.959 --> 00:03:01.726
그다음에 소설가 구보씨의
일일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.

00:03:01.826 --> 00:03:06.738
구보가 나오고, 그다음에 사내가
나오고요, 최군이 나옵니다.

00:03:06.838 --> 00:03:09.094
여기가 이제 작품 안이죠.

00:03:09.194 --> 00:03:10.498
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

00:03:10.598 --> 00:03:12.751
어떤 구절이 나오냐면
이렇게 써 볼게요.

00:03:12.851 --> 00:03:17.357
이 사내는, 여기에서

사내는 여기 사내예요.

00:03:17.457 --> 00:03:25.078
일종의 득의감을,
득의감은 득의양양하다,

00:03:25.178 --> 00:03:27.653
이렇게 만족감 이런 거 있잖아요.

00:03:27.753 --> 00:03:29.511
득의감은 자신만만함 이런 거예요.

00:03:29.611 --> 00:03:37.507
득의감을 맛보고 있는지
모른다, 이렇게 나와요.

00:03:37.607 --> 00:03:40.425
여기에서 서술자는 전지적
작가 시점이거든요.

00:03:40.525 --> 00:03:43.010
그런데 3인칭 전지적
작가 시점인데,

00:03:43.110 --> 00:03:45.921
여기에서 보시면 이런
구절이 좀 특징적입니다.

00:03:46.021 --> 00:03:50.195
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면
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면

00:03:50.295 --> 00:03:51.667
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.

00:03:51.767 --> 00:03:54.185
이 사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
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,

00:03:54.285 --> 00:03:57.477
여기에서는 서술자가
전지적 시점이지만,

00:03:57.577 --> 00:04:00.074
구보라고 하는 특정 인물.

00:04:00.174 --> 00:04:04.696
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
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.

00:04:04.796 --> 00:04:08.046
특정 인물의 시점에서 바라보고
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.

00:04:08.146 --> 00:04:09.647
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.

00:04:09.747 --> 00:04:13.311
그러니까 구보라고 하는 사람이
사내라고 하는 사람을

00:04:13.411 --> 00:04:15.574
자아 심리를 알지 못한단
말이에요, 그렇죠?

00:04:15.674 --> 00:04:17.734
짐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04:17.834 --> 00:04:21.389
그래서 있는지 모른다라고
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

00:04:21.489 --> 00:04:25.178
이런 게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 제한적
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.

00:04:25.278 --> 00:04:29.119
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
사내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

00:04:29.219 --> 00:04:33.627
그러면 이 구보라고 하는 사람이
이 안에서, 공간 안에서,

00:04:33.727 --> 00:04:37.044
작품 안에, 공간 내에서 구보,
사내, 최군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.

00:04:37.144 --> 00:04:38.808
그러니까 거리가 가깝다고.

00:04:38.908 --> 00:04:41.796
가까우니까 이 사내라고
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04:41.896 --> 00:04:45.220
그런데 만약에 이 시점이 이렇게
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?

00:04:45.320 --> 00:04:46.444
작가가 있고요.

00:04:46.544 --> 00:04:49.467
작가가 있고, 서술자가 있어요.

00:04:49.567 --> 00:04:53.642
서술자가 이렇게 본다면 구보,
물론 주인공은 구보이고,

00:04:53.742 --> 00:04:58.944
사내, 최군 이렇게 만약에
전개되고 있는 글이라면

00:04:59.044 --> 00:05:01.049
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.

00:05:01.149 --> 00:05:05.619
서술자가 사내에 대해서
직접 평가하는 거거든요.

00:05:05.719 --> 00:05:09.315
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내는,

이렇게 되는 거예요, 그 사내는.

00:05:09.415 --> 00:05:14.225
당연히 작품 바깥에 있으니까 당연히
그 사내는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.

00:05:14.325 --> 00:05:16.438
저 사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.

00:05:16.538 --> 00:05:20.256
저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거리가
멀었을 때 저 사내라고 하겠죠.

00:05:20.356 --> 00:05:24.921
일종의 득의감을 맛보고
있었다, 이렇게 써야겠죠.

00:05:25.021 --> 00:05:25.873
왜?

00:05:25.973 --> 00:05:28.472
일종의 득의감을 맛보고
있었다고 하는 심리를

00:05:28.572 --> 00:05:31.189
직접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
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

00:05:31.289 --> 00:05:32.703
직접 말을 해줘야겠죠.

00:05:32.803 --> 00:05:35.422
그래서 맛보고 있었다, 이렇게
써줘야 되는 거예요.

00:05:35.522 --> 00:05:39.297
그러니까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
하는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.

00:05:39.397 --> 00:05:42.669
사실은 전지적 작가 시점
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

00:05:42.769 --> 00:05:45.927
제한적 전지적 작가
시점입니다, 아시겠죠?

00:05:46.027 --> 00:05:49.561
그럼 여기 나오는 내용을
보시면, 볼까요?

00:05:49.661 --> 00:05:53.358
저기 아저씨두 왔어 하고
속삭이니까 어머니는 흠칫하면서

00:05:53.458 --> 00:05:56.935
내 입을 손으로 막고 막 끌어당기며
옆에 앉히고 고개를 누르더군요.

00:05:57.035 --> 00:06:00.817
보니까 어머니도 얼굴이 홍당무처럼

빨개졌더군요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06:00.917 --> 00:06:04.288
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
내 입이라고 얘기했으니까

00:06:04.388 --> 00:06:05.828
1인칭 시점이겠죠.

00:06:05.928 --> 00:06:07.288
그다음에 관찰만 하고 있어요.

00:06:07.388 --> 00:06:09.117
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.

00:06:09.217 --> 00:06:12.144
나라는 부수적 인물이 어머니와
사랑방 손님 사이에서 일어나는

00:06:12.244 --> 00:06:15.057
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하고 있는
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.

00:06:15.157 --> 00:06:16.376
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

00:06:16.476 --> 00:06:20.119
그다음에 그야말로 재수가
옴 붙어서 근 열흘 동안

00:06:20.219 --> 00:06:24.022
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
십 전짜리 백통화 서 푼

00:06:24.122 --> 00:06:27.059
또는 다섯 푼이 찰깍하고
손바닥에 떨어질 때

00:06:27.159 --> 00:06:30.642
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
기뻤다라고 되어 있죠.

00:06:30.742 --> 00:06:33.337
기뻤다라고 하는 심리를 직접
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.

00:06:33.437 --> 00:06:35.644
서술자가, 서술자는 바깥에 있죠.

00:06:35.744 --> 00:06:39.191
등장인물 김첨지의 내면 심리까지
모두 말하고 있는 거니까

00:06:39.291 --> 00:06:42.347
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.

00:06:42.447 --> 00:06:44.255
그다음에 서술 방식을 볼게요.

00:06:44.355 --> 00:06:47.611
서술 방식은 크게 여러분,

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

00:06:47.711 --> 00:06:48.913
서술된 내용이 있고요.

00:06:49.013 --> 00:06:53.369
그다음에 묘사된 내용이 있고,
그다음에 대화 부분이 나와요.

00:06:53.469 --> 00:06:56.067
이 세 가지가 이제 서술
방식의 특징입니다.

00:06:56.167 --> 00:06:59.148
서술자가 인물, 사건, 배경에
대해 이야기하듯 제시하는 방식이

00:06:59.248 --> 00:07:00.723
바로 서술이고요.

00:07:00.823 --> 00:07:02.955
인물의 심리와 특성을 직접
드러내거나 요약적 서술로

00:07:03.055 --> 00:07:06.605
사건을 빠르게 전개할 수밖에
없는 거죠, 서술은.

00:07:06.705 --> 00:07:11.046
지난날 성삼이와 덕재가 아직
열두어 살쯤 났을 때 일이었다.

00:07:11.146 --> 00:07:16.213
어른들 몰래 둘이서 올가미를 놓아 여기
학 한 마리를 잡은 일이 있었다.

00:07:16.313 --> 00:07:17.612
단정학이었다.

00:07:17.712 --> 00:07:19.772
과거 이야기를 다 얘기해주고
있는 거잖아요.

00:07:19.872 --> 00:07:24.822
그러니까 이게 서술 방식이 바로 뭘
뜻하는 거냐면 서술된 거예요.

00:07:24.922 --> 00:07:28.087
지난날의 과거 이야기를 요약해서
제시해주고 있는 거죠.

00:07:28.187 --> 00:07:30.184
작품 밖의 서술자입니다, 당연히.

00:07:30.284 --> 00:07:32.629
인물과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듯
직접적으로 서술하는

00:07:32.729 --> 00:07:35.715
서술의 방식이 이용되었죠,
서술 방식입니다.

00:07:35.815 --> 00:07:38.374
서술 방식 중에 이제 서술이에요.

00:07:38.474 --> 00:07:41.576
묘사는 독자들이 스스로 인물이나
배경 또는 사건에 대한

00:07:41.676 --> 00:07:45.067
인상을 받도록 이해할 수
있도록 어떤 장면을 그려내듯

00:07:45.167 --> 00:07:46.931
보여주는 장면입니다.

00:07:47.031 --> 00:07:49.437
밤중을 지난 무렵인지
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

00:07:49.537 --> 00:07:52.826
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
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.

00:07:52.926 --> 00:07:55.965
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
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.

00:07:56.065 --> 00:07:58.794
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
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

00:07:58.894 --> 00:08:02.214
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
지경이었다라고 해서

00:08:02.314 --> 00:08:04.610
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.

00:08:04.710 --> 00:08:07.600
달빛이 비추는 밤에 메밀꽃이
핀 고요한 산길의 모습을

00:08:07.700 --> 00:08:11.290
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는 묘사의
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.

00:08:11.390 --> 00:08:13.102
대화를 볼까요?

00:08:13.202 --> 00:08:16.338
말 그대로 대화를 따옴표가
있는데,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

00:08:16.438 --> 00:08:18.865
따옴표 없이 전개되는
대화도 있다는 거예요.

00:08:18.965 --> 00:08:21.723
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
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.

00:08:21.823 --> 00:08:23.530
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어.

00:08:23.630 --> 00:08:24.744
아무도 안 가나요?

00:08:24.844 --> 00:08:25.790
우린 삼포로 갑니다.

00:08:25.890 --> 00:08:26.807
내 고향이오.

00:08:26.907 --> 00:08:29.021
잊어버리지 않을게요,
이렇게 얘기했어요.

00:08:29.121 --> 00:08:31.680
정 씨, 영달, 백화의 대화를
통해서 영달과 정 씨가

00:08:31.780 --> 00:08:35.050
삼포로 갈 것이고, 앞으로의
사건 전개를 짐작할 수 있고,

00:08:35.150 --> 00:08:37.769
고마움을 느끼는 백화의 심리를
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.

00:08:37.869 --> 00:08:40.613
특히 서술된 부분을
뭐라고 하냐면요.

00:08:40.713 --> 00:08:43.550
여러분, 직접적 제시
방법이라고 합니다.

00:08:43.650 --> 00:08:48.197
그다음에 묘사와 대화 부분은
간접적 제시 방법이라고 합니다.

00:08:48.297 --> 00:08:50.897
성격 제시 방법 중에서
간접적 성격 제시죠.

00:08:50.997 --> 00:08:54.727
간접적 성격 제시라고 하면
우리가 직접, 독자가 직접

00:08:54.827 --> 00:08:58.073
거기에서 심리를 우리가
추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.

00:08:58.173 --> 00:09:00.366
그게 바로 간접적 제시
방법의 특징이죠.

00:09:00.466 --> 00:09:04.056
소설 속의 나가
주인공을 관찰합니다.

00:09:04.156 --> 00:09:06.161

1인칭 관찰자 시점이겠죠.

00:09:06.261 --> 00:09:09.058
서술자가 소설 속 등장인물의
심리까지 모두 알고 있어요.

00:09:09.158 --> 00:09:11.719
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
할 수 있죠.

00:09:11.819 --> 00:09:15.179
서술은 외양이나 공간적 배경
등에 대해 그림 그리듯하는 건

00:09:15.279 --> 00:09:16.472
묘사의 방법이죠.

00:09:16.572 --> 00:09:19.362
사건을 요약으로 빠르게 전개하는
방식은 서술이라고 합니다.

00:09:19.462 --> 00:09:21.087
X, X가 되겠네요.

00:09:21.187 --> 00:09:23.388
그러면 유형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

00:09:23.488 --> 00:09:26.810
첫 번째 문제는 무정이라고
하는 작품입니다.

00:09:26.910 --> 00:09:30.527
무정이라는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
근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.

00:09:30.627 --> 00:09:34.563
우선 선택지 문제 1번을 보시면
[A]에 대한 설명으로

00:09:34.663 --> 00:09:38.089
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서 [A]
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.

00:09:38.189 --> 00:09:40.476
이거 보면서 바로 문제를
풀면 되겠습니다.

00:09:40.576 --> 00:09:43.081
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09:43.181 --> 00:09:44.077
볼게요.

00:09:44.177 --> 00:09:47.344
두 번째, 2번은 뭐냐면 ㉠~㉤에
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인데.

00:09:47.444 --> 00:09:49.853
이런 것도 여러분,
실시간으로 문제를 푸시는데

00:09:49.953 --> 00:09:53.207
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
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예요.

00:09:53.307 --> 00:09:55.135
심리 파악의 문제입니다.

00:09:55.235 --> 00:09:59.098
3번을 보면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
나타나는 기차의 서사적 기능으로

00:09:59.198 --> 00:10:01.309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아라 그랬는데.

00:10:01.409 --> 00:10:03.007
기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.

00:10:03.107 --> 00:10:05.850
기차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
한번 읽어 보고 가겠습니다.

00:10:05.950 --> 00:10:08.224
일제강점기의 기차는.

00:10:08.324 --> 00:10:10.863
그러면 이 작품의 배경이 일제강점기라고
하는 걸 알 수 있겠죠.

00:10:10.963 --> 00:10:15.269
기차는 우리 민족에게 과거와 미래를
가르는 경계선으로 다가온다.

00:10:15.369 --> 00:10:18.514
과거와 미래를 가르는
경계선이라고 하면

00:10:18.614 --> 00:10:21.800
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
타고 있는 게 바로 기차다.

00:10:21.900 --> 00:10:23.606
이렇게 짐작할 수
있겠네요, 그렇죠?

00:10:23.706 --> 00:10:27.189
또 한 기차는 공포와
동경의 대상이 됩니다.

00:10:27.289 --> 00:10:30.710
민중들이 기차를 탄다는 것은
생활 터전으로의 고향 상실이나

00:10:30.810 --> 00:10:32.338
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.

00:10:32.438 --> 00:10:34.832
다시 말하면 기차를
타고 떠나는 거잖아요.

00:10:34.932 --> 00:10:36.672

그러니까 고향을 상실하는 거죠.

00:10:36.772 --> 00:10:39.530
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거다,
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.

00:10:39.630 --> 00:10:41.469
민중들이 기차를 타고, 오케이.

00:10:41.569 --> 00:10:44.532
반면 문명 개화에 앞선
특권 계층들은 기차를 통해

00:10:44.632 --> 00:10:47.911
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던
외국 유학을 가거나

00:10:48.011 --> 00:10:49.921
서구 문물을 수용할 수 있었다.

00:10:50.021 --> 00:10:53.941
그러면 등장인물 중에 고향을
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,

00:10:54.041 --> 00:10:57.213
또는 문명 개화를 위해서 서구
세계에 대해서 동경하면서

00:10:57.313 --> 00:11:00.317
기차를 타고 떠나는 사람도 있겠죠.

00:11:00.417 --> 00:11:04.484
김동인도 지적하였듯이 이광수의
소설에서는, 이광수의 무정이잖아요.

00:11:04.584 --> 00:11:08.053
기차에서의 우연한 만남이
나타납니다, 여기에서.

00:11:08.153 --> 00:11:12.612
빈번하게 나타나며 무정에서도 기차는
작품 구성의 중요한 장치로

00:11:12.712 --> 00:11:14.334
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.

00:11:14.434 --> 00:11:16.975
기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
찾아내셔야 됩니다.

00:11:17.075 --> 00:11:21.349
그다음에 4번은 [A]에 나타난 인물의
심리 방식을 찾아라 그랬으니까

00:11:21.449 --> 00:11:23.832
한자성어 문제도 나와 있네요.

00:11:23.932 --> 00:11:25.757
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11:25.857 --> 00:11:28.669

뭐 이제 국어 문학사에서
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에요.

00:11:28.769 --> 00:11:31.806
상당히 중요한 작품인데,
소설의 완성도는 높지 않죠.

00:11:31.906 --> 00:11:32.589
왜?

00:11:32.689 --> 00:11:35.661
최초의 근대 소설이니까
자유연애사상이라든가

00:11:35.761 --> 00:11:37.494
이런 근대적 사상이
나타나 있는 것은

00:11:37.594 --> 00:11:43.888
근대 소설의 면모를 보여주고
있지만, 소설 자체가 계몽적이에요.

00:11:43.988 --> 00:11:45.422
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거죠.

00:11:45.522 --> 00:11:48.476
뭔가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는
점에서는 근대 소설의 면모를

00:11:48.576 --> 00:11:51.271
아직까지는 완성하지 못했다,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11:51.371 --> 00:11:53.031
가볼까요?

00:11:53.131 --> 00:11:54.860
차가 남대문에 닿았다.

00:11:54.960 --> 00:11:58.207
아직 다 어둡지는 아니하였으나
사방에 반작반작 전기등이 켜졌다.

00:11:58.307 --> 00:12:03.150
전차 소리, 인력거 소리, 이
모든 소리를 합한 도회의 소리와.

00:12:03.250 --> 00:12:04.351
도회가 뭐예요?

00:12:04.451 --> 00:12:07.763
도시의 소리와 넓은 플랫폼에
울리는 나막신 소리가 합하여

00:12:07.863 --> 00:12:11.939
지금까지 고요한 자연 속에 있던
사람의 귀에는 퍽 소요하게 들린다.

00:12:12.039 --> 00:12:14.824
소요하게, 어수선하게
들린다 이런 거죠.

00:12:14.924 --> 00:12:16.962
도회의 소리, 도시의 소리입니다.

00:12:17.062 --> 00:12:20.164
그러나 그것이 문명의 소리다.

00:12:20.264 --> 00:12:22.376
도시의 소리가 바로 문명의 소리죠.

00:12:22.476 --> 00:12:25.906
그 소리가 요란할수록 그 나라가
잘 된다, 이거는 뭐야?

00:12:26.006 --> 00:12:28.460
개화 의식, 문명 개화에
대해서 긍정적으로

00:12:28.560 --> 00:12:30.204
인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네요.

00:12:30.304 --> 00:12:33.709
수레바퀴 소리, 증기와 전기
기관 소리, 쇠마차 소리.

00:12:33.809 --> 00:12:34.999
여러 가지 소리들이죠?

00:12:35.099 --> 00:12:38.582
이러한 모든 소리가 합하여 비로소
찬란한 문명을 낳습니다.

00:12:38.682 --> 00:12:41.777
그게 바로 이제 기차소리예요.

00:12:41.877 --> 00:12:44.860
실로 현대의 문명은
소리의 문명이라.

00:12:44.960 --> 00:12:46.782
서울도 아직 소리가 부족하다.

00:12:46.882 --> 00:12:49.058
그러니까 아직까지 문명 개화가
조금 부족하다는 거죠?

00:12:49.158 --> 00:12:52.209
종로나 남대문통에 서서 서로
말소리가 아니 들릴 만큼

00:12:52.309 --> 00:12:54.677
문명의 소리가 요란하여야
할 것이다.

00:12:54.777 --> 00:12:57.769
이런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그런
말투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

00:12:57.869 --> 00:13:00.437
아직까지 한계성을 띠고 있다,
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

00:13:00.537 --> 00:13:01.655
그러나 불쌍하다.

00:13:01.755 --> 00:13:04.158
뭔가 문제점이 있나 봐요, 그렇죠?

00:13:04.258 --> 00:13:08.273
서울 장안에 사는 삼십여 만 흰옷
입은 사람들은, 조선인을 대표합니다.

00:13:08.373 --> 00:13:10.803
이 소리의 뜻을 모른다.

00:13:10.903 --> 00:13:14.063
그러니까 아직까지 문명 개화가
많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.

00:13:14.163 --> 00:13:15.990
또 이 소리와는 상관이
없이 살아가고 있어요.

00:13:16.090 --> 00:13:19.532
그네는 이 소리를 들을 줄
알고 듣고 기뻐할 줄 알고,

00:13:19.632 --> 00:13:22.040
마침내 제 손으로 이 소리를
내도록 되어야 한다.

00:13:22.140 --> 00:13:25.129
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
문명 개화에 대해서

00:13:25.229 --> 00:13:29.931
인식하지 못하고 있고, 거기에
대해서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죠.

00:13:30.031 --> 00:13:33.255
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
비판적인 인식이 나타나 있어요.

00:13:33.355 --> 00:13:36.855
저 플랫폼에 분주히 왔다 갔다
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

00:13:36.955 --> 00:13:39.945
이 분주한 뜻을 아는지, 왜 저
전등이 저렇게 많이 켜지며,

00:13:40.045 --> 00:13:46.912
왜 저 전보 기계와 전화
기계가 저렇게 불분주야하고.

00:13:47.012 --> 00:13:50.679
불분주야는 뭐냐면 주야, 밤낮을
가리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.

00:13:50.779 --> 00:13:56.354
때각거리며 왜 저 흉물스러운 기차와
전차가 주야로 달아 나는지.

00:13:56.454 --> 00:14:00.193
이 뜻을 아는 사람이 몇몇이나
되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14:00.293 --> 00:14:02.574
여러분,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?

00:14:02.674 --> 00:14:05.654
[A]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
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.

00:14:05.754 --> 00:14:10.083
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.

00:14:10.183 --> 00:14:13.159
보수적인 관점에서 동시대의
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

00:14:13.259 --> 00:14:16.099
비판하고 있다고 했는데,
이게 참 어렵습니다.

00:14:16.199 --> 00:14:18.934
보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
것은 어떤 거냐면요.

00:14:19.034 --> 00:14:22.691
기존의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
입장이 바로 보수적인 입장이죠.

00:14:22.791 --> 00:14:26.273
이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단어를
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.

00:14:26.373 --> 00:14:28.566
그런데 이 정도는 다
아시지 않을까 싶어요.

00:14:28.666 --> 00:14:30.632
보수적인 관점이 아니고요.

00:14:30.732 --> 00:14:34.706
여기에서는 개화해야 된다, 발전해야
된다, 변화해야 된다는 거니까

00:14:34.806 --> 00:14:36.967
진보적인 관점이라고 보셔야겠죠.

00:14:37.067 --> 00:14:39.439
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
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

00:14:39.539 --> 00:14:41.989
뭐냐면 문명의 소리가
요란할수록 나라가

00:14:42.089 --> 00:14:46.236
더 발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
거니까 보수적인 관점도 틀렸고요.

00:14:46.336 --> 00:14:48.934
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
비판하고 있다기보다는

00:14:49.034 --> 00:14:52.974
여러 가지 사회 문제보다는 지금
현재 개화되지 못하고 있는

00:14:53.074 --> 00:14:55.707
사람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고
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

00:14:55.807 --> 00:14:57.766
정답은 1번이죠.

00:14:57.866 --> 00:15:00.871
2번, 비유법과 열거법 등
다양한 표현법을 통해

00:15:00.971 --> 00:15:02.685
주제 의식을 표출하고
있다 그랬는데.

00:15:02.785 --> 00:15:05.049
비유법을 제가 못
찾았던 것 같은데요?

00:15:05.149 --> 00:15:06.570
비유법이 어디 있을까요?

00:15:06.670 --> 00:15:08.246
이런 것도 역시 비유법이 됩니다.

00:15:08.346 --> 00:15:11.955
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
대유법이 쓰인 거죠, 대유법.

00:15:12.055 --> 00:15:14.264
우리나라 사람들을
나타내는 대유법입니다.

00:15:14.364 --> 00:15:16.183
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을
것 같은데, 그렇죠?

00:15:16.283 --> 00:15:19.942
아무튼 열거법이라고 하면 무슨
소리, 무슨소리, 무슨 소리

00:15:20.042 --> 00:15:21.458
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.

00:15:21.558 --> 00:15:23.475
그러니까 2번 선택지도 적절하죠.

00:15:23.575 --> 00:15:25.669
소리와 관련된 다양한
소재를 활용해서

00:15:25.769 --> 00:15:27.833
변모된 시대상을 보여주고

있다, 맞습니다.

00:15:27.933 --> 00:15:31.147
전차 소리, 무슨 소리가
시대상의 변모를 보여주고 있죠.

00:15:31.247 --> 00:15:34.405
서술자의 적극적인 개입을
통해 작가 자신의 주장을

00:15:34.505 --> 00:15:35.846
직접 제시하고 있다.

00:15:35.946 --> 00:15:38.691
그러니까 작가의 말이 그대로
드러나듯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

00:15:38.791 --> 00:15:40.750
전지적 작가 시점으로써.

00:15:40.850 --> 00:15:43.115
일상적 구어체에 가까운
산문적 서술을 통해서

00:15:43.215 --> 00:15:47.305
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면
그 전의 소설들 같은 경우는

00:15:47.405 --> 00:15:49.623
뭐냐면 일상적인 구어체가 아니에요.

00:15:49.723 --> 00:15:53.263
일상적인 구어체가 아니라
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

00:15:53.363 --> 00:15:58.432
~함이라, ~하는도다 이런 것들은
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 거잖아요.

00:15:58.532 --> 00:16:02.252
옛날에는 문어체라고 해서
일상적인 구어체와 반대인

00:16:02.352 --> 00:16:05.275
글에서만 쓰이는 문체들이 쓰였어요.

00:16:05.375 --> 00:16:09.617
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은, 1번의
정답은 1번인 걸 알 수 있겠죠.

00:16:09.717 --> 00:16:11.494
넘어갑니다.

00:16:11.594 --> 00:16:15.474
이렇게 북적북적하는 속에,
드디어 등장인물이 나왔습니다.

00:16:15.574 --> 00:16:18.567
영채는, 영채라고
하는 인물이 나왔죠.

00:16:18.667 --> 00:16:22.387
행여나 누가 자기 얼굴을 볼까 하여
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앉았다.

00:16:22.487 --> 00:16:24.240
한자성어 문제 나왔네요.

00:16:24.340 --> 00:16:27.060
등장인물의 심리를 설명하는
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16:27.160 --> 00:16:30.328
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
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

00:16:30.428 --> 00:16:32.465
좀 불편한 자리에
앉아 있다는 거예요.

00:16:32.565 --> 00:16:36.025
한자성어로 좌불안석이라고
얘기하죠, 좌불안석.

00:16:36.125 --> 00:16:37.309
뒤에 나오는 거 볼까요?

00:16:37.409 --> 00:16:40.667
간담상조는 간과 쓸개를 서로
비추어 보다 이런 건데.

00:16:40.767 --> 00:16:44.185
그 정도로 비추어 볼 수 있을
정도로 가까운 사이를 뜻합니다.

00:16:44.285 --> 00:16:47.186
전전반측은 뒤척이면서 잠을
이루지 못하는 거고요.

00:16:47.286 --> 00:16:50.402
그다음에 침소봉대는
소, 작은 것을 보고.

00:16:50.502 --> 00:16:55.179
봉대, 크게 확대해서 과장해서 크게
거짓말하는 거예요, 쉽게 말하면.

00:16:55.279 --> 00:16:57.371
크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,
과장되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.

00:16:57.471 --> 00:17:02.275
절치부심은 뭐냐면 몹시 분해서 이를
갈고 속을 삭인다 이런 뜻이에요.

00:17:02.375 --> 00:17:05.597
절치부심하는 자세로,
분노하는 자세로.

00:17:05.697 --> 00:17:09.602
그래서 복수를 한다든가 원수를
갚는다든가 이런 거겠죠.

00:17:09.702 --> 00:17:11.677
가보겠습니다.

00:17:11.777 --> 00:17:14.273
병욱은, 병욱이라는
인물도 나왔네요.

00:17:14.373 --> 00:17:17.048
혹 자기의 동창 친구나
만날까 하고.

00:17:17.148 --> 00:17:20.570
영채는 누가 자기 얼굴을
볼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,

00:17:20.670 --> 00:17:24.160
병욱은 혹 자기의 동창 친구나
만날까 하고 플랫폼에 내려서

00:17:24.260 --> 00:17:26.392
이리저리 거닐다가
아무도 만나지 못하고

00:17:26.492 --> 00:17:30.122
도로 차실로 들어오려 할 적에 누가
어깨를 치면서 병욱 언니 아니야요?

00:17:30.222 --> 00:17:32.696
병욱이가 여자였나 봐요, 그렇죠?

00:17:32.796 --> 00:17:34.101
병욱 언니 아니야요?

00:17:34.201 --> 00:17:38.574
병욱은 놀라 돌아서며 자기보다
이태를 떨어졌던 동창생을 보았다.

00:17:38.674 --> 00:17:42.329
이태를 떨어졌다는 얘기는 2년
정도 떨어진 그런 동창생이죠.

00:17:42.429 --> 00:17:44.491
에그, 얼마 만이어.

00:17:44.591 --> 00:17:46.224
그런데 어디로 가오?

00:17:46.324 --> 00:17:47.799
지금 동경으로 가는 길인데.

00:17:47.899 --> 00:17:49.761
기차를 타고 동경으로 가고 있죠.

00:17:49.861 --> 00:17:52.304
동경이 바로 이제
어디냐면 도쿄인가요?

00:17:52.404 --> 00:17:53.612
뭐 그쪽이잖아요, 그렇죠?

00:17:53.712 --> 00:17:56.161
그러면 동경으로 가고 있다는
얘기는 바로 뭐냐면

00:17:56.261 --> 00:17:59.160
새로운 문명 세계를 동경하면서
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

00:17:59.260 --> 00:18:03.526
고향을 떠나서 가난해서 이렇게 가고
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죠.

00:18:03.626 --> 00:18:04.828
왜, 어느 새에.

00:18:04.928 --> 00:18:09.413
여보, 그런데 좀 만나 보고나 가는
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정하오.

00:18:09.513 --> 00:18:11.937
왜 우리 만나보지도 않고
그냥 떠나려고 해요?

00:18:12.037 --> 00:18:16.882
하고 썩 돌아서더니 아무려나 내립시오,
우리 집으로 갑시다 한다.

00:18:16.982 --> 00:18:20.905
우리 집에 가서 얘기 좀 하고 가요,
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, 그렇죠?

00:18:21.005 --> 00:18:23.707
등장인물은 영채하고
병욱이가 등장했습니다.

00:18:23.807 --> 00:18:25.704
아니오, 동행이 있어서.

00:18:25.804 --> 00:18:27.261
그런데 누구 작별 나왔소?

00:18:27.361 --> 00:18:29.265
응, 아니, 언니 모르셔요?

00:18:29.365 --> 00:18:30.207
무엇을?

00:18:30.307 --> 00:18:31.678
에그, 저런, 저 선형이 알지요.

00:18:31.778 --> 00:18:32.897
선형이가 또 나왔네요.

00:18:32.997 --> 00:18:33.962
선형이 알지요.

00:18:34.062 --> 00:18:36.366
선형이가 오늘 미국으로 떠난답니다.

00:18:36.466 --> 00:18:38.536
서구 사회죠, 서구

사회로 떠납니다.

00:18:38.636 --> 00:18:40.559
선형이가 미국, 하고 놀란다.

00:18:40.659 --> 00:18:43.783
그 여학생은 저편 이등실 앞에
사람들이 모여 선 것을 가리키며

00:18:43.883 --> 00:18:49.632
저기 탔는데, 이번에 혼인해서
양주가, 부부가 이런 뜻입니다.

00:18:49.732 --> 00:18:52.571
미국 공부하러 간다오, 잘들 한다.

00:18:52.671 --> 00:18:57.227
이거 뭐 비꼬는 태도는
아닌 것 같습니다.

00:18:57.327 --> 00:19:00.811
다 미국을 가느니 일본을 가느니
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썩는구먼

00:19:00.911 --> 00:19:02.167
이렇게 얘기했어요.

00:19:02.267 --> 00:19:03.391
나혼자 이렇게 썩는구먼.

00:19:03.491 --> 00:19:07.263
다 이렇게 뭔가 유학을 떠나기도
하고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떠나는데

00:19:07.363 --> 00:19:11.036
나 혼자 이렇게 썩는구먼, 이렇게
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.

00:19:11.136 --> 00:19:17.838
뒤에 나오는 2번 문제 보시면
여학생은 상황 판단에 대한 무지로

00:19:17.938 --> 00:19:20.232
자신이 희생양이 되었다,
웬 희생양입니까?

00:19:20.332 --> 00:19:23.808
자기가 희생양이 된 건 아니고요, 상황
판단 잘못 했다 이런 게 아니고.

00:19:23.908 --> 00:19:26.895
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나는
여기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,

00:19:26.995 --> 00:19:29.293
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

00:19:29.393 --> 00:19:33.586
병욱은 여학생을 따라, 영채가
등장했고요, 병욱이 등장했고,

00:19:33.686 --> 00:19:36.549
그다음에 여학생은 그냥
보조적 인물인 것 같죠.

00:19:36.649 --> 00:19:39.403
선형이가 탔다는 차 앞까지
갔으나 너무 사람이 많아서

00:19:39.503 --> 00:19:40.692
곁에 갈 수가 없었다.

00:19:40.792 --> 00:19:42.366
그 장면을 상상하셔야 돼요.

00:19:42.466 --> 00:19:45.654
기차 그다음 칸으로 옮겨서 이렇게
보려고 했는데 못 봤던 거예요.

00:19:45.754 --> 00:19:48.909
선형은 하얀 양복에
맨머리로 창 밑에 서서

00:19:49.009 --> 00:19:53.782
전송 나온 사람들의 인사를 대답하고,
그 곁에는 어떤 양복 입은

00:19:53.882 --> 00:19:56.548
젊은 신사가, 이게 바로
그 남편인 것 같죠?

00:19:56.648 --> 00:19:59.249
그 역시 연해 고개를 숙여
가며 무슨 인사를 한다.

00:19:59.349 --> 00:20:01.143
연해, 계속해서 인사를
하고 있습니다.

00:20:01.243 --> 00:20:04.214
갈게요, 잘 다녀올게요 이런
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.

00:20:04.314 --> 00:20:05.987
선형과 남편이죠.

00:20:06.087 --> 00:20:07.793
2번 볼까요?

00:20:07.893 --> 00:20:08.909
2번에 2번.

00:20:09.009 --> 00:20:11.970
선형은 현실 도피를 꿈꾸는
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이다.

00:20:12.070 --> 00:20:17.644
여기에서는 ㉡을 통해서 현실 도피를
꿈꾼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없죠.

00:20:17.744 --> 00:20:24.101
여기에서는 하얀 양복에 맨머리로

창 밑에 서서라고 하면 신여성,

00:20:24.201 --> 00:20:30.113
새로운, 그때 근대화가 시작되고
있는 그때 당시 양복 같은

00:20:30.213 --> 00:20:32.767
이런 옷을 입고 있는
여성으로서 봤을 때

00:20:32.867 --> 00:20:35.858
그때 당시 신여성의 모습을
띠고 있다, 이렇게 보셔야죠.

00:20:35.958 --> 00:20:38.538
현실 도피를 꿈꾼다고
얘기하면 안 되겠죠.

00:20:38.638 --> 00:20:41.934
전송인은 대개, 전송 나온
사람들은 대개 두 패로 갈려서

00:20:42.034 --> 00:20:45.964
한편은 여자만 모이고,
한편에는 남자만 모여 섰다.

00:20:46.064 --> 00:20:50.465
그 남자들은 모두 다 서울
장안의 문명하였다는 계급이다.

00:20:50.565 --> 00:20:54.104
문명하였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공부
꽤나 했다는 그런 계급들이에요.

00:20:54.204 --> 00:20:58.928
병욱은 한참이나 그것을 보고 섰다가
중로에서 선형을 찾아볼 양으로

00:20:59.028 --> 00:21:03.000
그 차실 바로 뒤에 달린 자기의 차실에
올라왔다, 선형을 찾아보려고.

00:21:03.100 --> 00:21:06.377
영채는 여전히 고개를
숙이고 앉아 있다.

00:21:06.477 --> 00:21:08.965
아까 탔던 사람은 거의 다
내리고 새로운 승객이

00:21:09.065 --> 00:21:12.076
거의 만원이라 할
만큼 많이 올랐어요.

00:21:12.176 --> 00:21:15.816
어떤 사람은 웃옷을 벗어 걸고, 어떤
사람은 창에 붙어서 작별을 하며,

00:21:15.916 --> 00:21:18.505
또 어떤 사람은 벌써 신문을
들고 앉아 있습니다.

00:21:18.605 --> 00:21:21.824
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은
병욱과 영채 둘뿐이다.

00:21:21.924 --> 00:21:25.114
병욱하고 영채 둘만
흰옷을 입었대요.

00:21:25.214 --> 00:21:28.199
병욱은 자리에 앉아서 방
안을 한번 둘러보고 영채더러

00:21:28.299 --> 00:21:29.764
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았니?

00:21:29.864 --> 00:21:34.421
어째 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마음이
이상하게 혼란하여집니다그려.

00:21:34.521 --> 00:21:40.860
어째 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마음이
이상하게 혼란하여집니다그려.

00:21:40.960 --> 00:21:43.523
왜 남대문이 왜 얘한테
혼란스러워질까요?

00:21:43.623 --> 00:21:45.567
어서 차가 떠났으면 좋겠다.

00:21:45.667 --> 00:21:51.382
할 때에 벌써 종 흔드는 소리가
나고, 사요나라, 고키겐요우.

00:21:51.482 --> 00:21:52.836
이게 무슨 뜻입니까?

00:21:52.936 --> 00:21:54.505
잘 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?

00:21:54.605 --> 00:21:55.634
모르겠는데요, 잘?

00:21:55.734 --> 00:21:58.868
하는 소리가 소낙비같이 들리더니
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한다.

00:21:58.968 --> 00:22:00.753
㉢ 내용을 볼까요?

00:22:00.853 --> 00:22:04.856
영채는 구시대적인 권위나 특권에
대해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.

00:22:04.956 --> 00:22:08.661
남대문이라는 소리에 뭔가 좀
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,

00:22:08.761 --> 00:22:12.025
이걸 가지고 구시대적인 권위나

특권에 대한 반감이라고

00:22:12.125 --> 00:22:13.323
얘기할 수는 없죠.

00:22:13.423 --> 00:22:17.928
여기에서 이제 이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
것, 일본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.

00:22:18.028 --> 00:22:20.706
뭐 이런들이 마음이
좀 심란한 것뿐이지

00:22:20.806 --> 00:22:24.684
어떤 특권 세력에 대한 반감이나
이런 것들은 조금 오버입니다.

00:22:24.784 --> 00:22:28.861
어디서 만세, 이형식 군
만세 하는 소리가 들린다.

00:22:28.961 --> 00:22:31.357
두 사람은 깜짝 놀라
귀를 기울인다.

00:22:31.457 --> 00:22:34.935
아까 이형식 군이 누구인지는 잘
모르겠으나, 저는 아는데.

00:22:35.035 --> 00:22:38.124
잘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이형식
군 만세 이러고 있어요.

00:22:38.224 --> 00:22:40.550
2번에 4번 선택지 볼까요?

00:22:40.650 --> 00:22:44.016
형식은 개화된 젊은이들이
선망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.

00:22:44.116 --> 00:22:45.057
당연하죠.

00:22:45.157 --> 00:22:46.871
만세, 만세 그랬으니까
선망의 대상이죠.

00:22:46.971 --> 00:22:49.066
또 한 번 이형식 군 만세
하는 소리가 들린다.

00:22:49.166 --> 00:22:52.492
지금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두
사람의 창밖으로 얼른한다.

00:22:52.592 --> 00:22:57.248
그것은 모시 두루마기에
파나마 쓴 패였는데.

00:22:57.348 --> 00:22:59.737
병욱은 아까 선형의

곁에 있던 사람이,

00:22:59.837 --> 00:23:01.597
아까 부부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.

00:23:01.697 --> 00:23:06.074
형식인 것과 형식이가 선형의
지아비인 줄도 짐작하였다.

00:23:06.174 --> 00:23:07.718
둘이 부부였던 거죠.

00:23:07.818 --> 00:23:09.725
그러나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.

00:23:09.825 --> 00:23:14.116
2번에 5번 보면 병욱은
타인 일에 관여하기 싫어하는

00:23:14.216 --> 00:23:15.519
냉정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.

00:23:15.619 --> 00:23:17.096
문제가 너무 쉬워요, 그렇죠?

00:23:17.196 --> 00:23:19.372
영채는 형식이란,
틀렸습니다, 여러분.

00:23:19.472 --> 00:23:22.760
영채는 형식이란 소리를 듣고
문득 가슴이 덜렁함을 깨달았다.

00:23:22.860 --> 00:23:24.255
옛날에 사귀었던 사람이거든요.

00:23:24.355 --> 00:23:27.602
지금까지 아무쪼록 형식을 잊어버리려
하였으나 방금 같은 기차에

00:23:27.702 --> 00:23:30.762
형식이가 탄 것을 생각하매 알 수
없는 눈물이 자연히 떨어진다.

00:23:30.862 --> 00:23:34.089
옛날에 이렇게 만났던 그런
사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둘이

00:23:34.189 --> 00:23:36.576
또 만났다는 게 정말
우연한 만남이잖아요.

00:23:36.676 --> 00:23:40.945
아까 얘기했던 3번 문제에서 나왔던
그런 우연한 만남일 겁니다.

00:23:41.045 --> 00:23:42.251
어휘 풀이 됐고요.

00:23:42.351 --> 00:23:44.609
형식과 결혼하여 유학을

떠난 사람은 누구예요?

00:23:44.709 --> 00:23:47.768
선형이가 결혼해서 떠나는
걸 알 수 있었죠.

00:23:47.868 --> 00:23:50.966
그다음에 영채는 기차 안에서 아는
사람을 만날까 봐 꺼리고 있다.

00:23:51.066 --> 00:23:52.141
동그라미입니다.

00:23:52.241 --> 00:23:54.966
그다음에 병욱은 선형과 기차에서
만나기로 약속했다라고 했는데.

00:23:55.066 --> 00:23:57.243
약속한 게 아니라
선형이도 여기 탔어,

00:23:57.343 --> 00:24:00.141
우연히 얘기하고 있었던
거니까 정답 X가 되겠죠.

00:24:00.241 --> 00:24:03.213
[A]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
않은 거 정답 1번이었습니다.

00:24:03.313 --> 00:24:06.699
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
바로 보수적인 관점이 될 수 없죠.

00:24:06.799 --> 00:24:08.262
정답 1번.

00:24:08.362 --> 00:24:10.679
㉠~㉤에 대한 이해, 정답
4번이 정답이었습니다.

00:24:10.779 --> 00:24:12.119
3번 볼까요?

00:24:12.219 --> 00:24:13.468
아까 읽었던 거죠.

00:24:13.568 --> 00:24:14.924
적절하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.

00:24:15.024 --> 00:24:17.246
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
것을 찾아라 그랬는데.

00:24:17.346 --> 00:24:21.388
인물들의 사회적 계층과 위상을
보여주는 수단이라고 하면 가능하죠.

00:24:21.488 --> 00:24:25.026
사람들이 이형식 군 만세
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

00:24:25.126 --> 00:24:27.350
지식인층이라고 하는 것도
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.

00:24:27.450 --> 00:24:29.847
기차를 타고 어디, 저기 어디니?

00:24:29.947 --> 00:24:33.788
서구 세계로 유학을 가고 있는
장면들이니까 특권층 세력입니다.

00:24:33.888 --> 00:24:36.039
그래서 사회 계층과
위상을 보여줍니다.

00:24:36.139 --> 00:24:38.833
고향 상실감이라고
하는 게 왜 틀렸냐면

00:24:38.933 --> 00:24:41.697
아까 선생님이 보기에서
두 부류의 사람이

00:24:41.797 --> 00:24:43.508
있을 수 있겠다고 얘기했잖아요.

00:24:43.608 --> 00:24:47.783
고향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
있겠고, 아니면 문명 개화를 위해서

00:24:47.883 --> 00:24:50.287
유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
수 있겠다고 얘기했는데.

00:24:50.387 --> 00:24:53.702
여기에서는 앞에 고향을 떠난
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.

00:24:53.802 --> 00:24:57.311
가난해서 먹고살기 힘들어서
유랑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니까

00:24:57.411 --> 00:24:59.300
고향 상실감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.

00:24:59.400 --> 00:25:02.312
역시 등장인물의 성격,
등장인물이 어떤 사람들인지를

00:25:02.412 --> 00:25:04.336
파악하면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.

00:25:04.436 --> 00:25:06.436
인물들의 만남을 통해, 만났죠.

00:25:06.536 --> 00:25:08.252
내적 갈등을 유발한다, 누가?

00:25:08.352 --> 00:25:10.701
영채라는 인물이 괴로워했잖아요,
마지막 부분에.

00:25:10.801 --> 00:25:13.469
서구적인 근대 문명개화의
상징물 맞고요.

00:25:13.569 --> 00:25:16.031
새 출발을 하게 해주는 장치다.

00:25:16.131 --> 00:25:18.019
이 사람들이 어떻게
가는지 모르겠지만,

00:25:18.119 --> 00:25:21.647
보기에서 과거와 단절하는 미래에
대한 모습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

00:25:21.747 --> 00:25:24.525
5번 선택지도 우리가
짐작할 수 있는 거겠죠.

00:25:24.625 --> 00:25:27.884
한자성어 문제는 아까
제가 풀었던 문제입니다.

00:25:27.984 --> 00:25:31.832
다음 유형 연습 두 번째로
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25:31.932 --> 00:25:33.774
흥부전입니다.

00:25:33.874 --> 00:25:37.122
이거는 여러분 먼저
문제를 보겠습니다.

00:25:37.222 --> 00:25:38.470
1번 볼게요.

00:25:38.570 --> 00:25:41.257
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
걸 찾아라 그랬습니다.

00:25:41.357 --> 00:25:44.933
㉠ 부분이 저기 뒤에 나오는데,
그 ㉠ 부분 보면서 실시간으로

00:25:45.033 --> 00:25:46.681
바로 보는데요.

00:25:46.781 --> 00:25:50.512
내용 전개 방식의
특징을 묻고 있어요.

00:25:50.612 --> 00:25:54.487
운문체, 현재와 과거의 교차,
열거의 방식 해학적이다,

00:25:54.587 --> 00:25:57.657
배경 묘사 역동적, 요약적,
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.

00:25:57.757 --> 00:25:59.116
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.

00:25:59.216 --> 00:26:02.383
2번, [A]~[C]에 대한
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.

00:26:02.483 --> 00:26:04.862
이것도 역시 부분 해석에
대한 문제예요.

00:26:04.962 --> 00:26:09.782
여기에서는 대화를 나누는
장면, 대화 나누는 장면들이

00:26:09.882 --> 00:26:13.277
세 번 나오는데, 이 대화 나누는
장면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

00:26:13.377 --> 00:26:16.786
파악해보면서 한번
봐라, 이런 뜻이죠.

00:26:16.886 --> 00:26:19.494
그다음에 3번은 보기를 참고해서
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

00:26:19.594 --> 00:26:22.006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아라라고 얘기했는데.

00:26:22.106 --> 00:26:24.979
흥부전에서는 흥부가 부자가
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놀부는

00:26:25.079 --> 00:26:27.969
자기도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
욕망을 품고 흥부 행위를

00:26:28.069 --> 00:26:30.010
악의적으로 모방하다
화를 입게 된다.

00:26:30.110 --> 00:26:33.084
이 과정을 흥부의 경우와 비교해서
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.

00:26:33.184 --> 00:26:35.290
친절해라, 이런 거 다
나오네요, 그렇죠?

00:26:35.390 --> 00:26:37.773
흥부,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
자연적으로 주어진다.

00:26:37.873 --> 00:26:39.723
제비가 갑자기 떨어졌잖아요.

00:26:39.823 --> 00:26:42.146
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기
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.

00:26:42.246 --> 00:26:44.117
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립니다.

00:26:44.217 --> 00:26:46.311
이거 우리가 배경
지식으로 알면 안 돼.

00:26:46.411 --> 00:26:47.831
앞에 나온 거로 볼게요.

00:26:47.931 --> 00:26:49.275
제비 다리를 고쳐주고요.

00:26:49.375 --> 00:26:50.651
흥부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죠.

00:26:50.751 --> 00:26:54.118
보상을 기대하지만, 상황에 개입할
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

00:26:54.218 --> 00:26:56.022
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고요.

00:26:56.122 --> 00:26:59.767
흥부는 부자가 되고, 더 큰 부자가
되고자 한 욕망 실현이 좌절된다.

00:26:59.867 --> 00:27:02.596
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온
것 같습니다, 그렇죠?

00:27:02.696 --> 00:27:07.439
4번은 ㉡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
적절한 것을 찾아라라고 했는데.

00:27:07.539 --> 00:27:10.254
이거 속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.

00:27:10.354 --> 00:27:13.053
내용을 한번 가볼게요.

00:27:13.153 --> 00:27:16.479
[A], [B], [C]
비교하라는 문제가 있었죠?

00:27:16.579 --> 00:27:18.612
2번 문제를 같이
보면서 갈 겁니다.

00:27:18.712 --> 00:27:23.411
흥부 마음 인후하여,
모르겠죠, 여러분?

00:27:23.511 --> 00:27:24.765
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.

00:27:24.865 --> 00:27:26.466
인품이 후하여 이런 뜻입니다.

00:27:26.566 --> 00:27:28.738

모르는 단어들은 그냥
넘어가셔도 됩니다, 여러분.

00:27:28.838 --> 00:27:33.412
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옥결이라.

00:27:33.512 --> 00:27:34.674
이거 너무 어렵죠.

00:27:34.774 --> 00:27:38.140
청산의 유수와 같다, 청산에
흘러가는 물과 같고.

00:27:38.240 --> 00:27:40.109
곤륜이라고 하는 게 곤륜산입니다.

00:27:40.209 --> 00:27:42.170
곤륜산이라는 산이 옛날에 있었어요.

00:27:42.270 --> 00:27:45.451
옥결이라, 옥과 같은,
곤륜산에서 나는 옥과 같다.

00:27:45.551 --> 00:27:51.659
아무튼 흉부 마음은 매우 인품이
온후하고, 인품이 후하고

00:27:51.759 --> 00:27:54.147
이런 뜻입니다.

00:27:54.247 --> 00:27:59.134
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,
저어하다는 것은 두려워하다.

00:27:59.234 --> 00:28:02.741
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, 술
먹고 여자 만나는 거에 무심하니.

00:28:02.841 --> 00:28:05.799
마음이 이러하매 부귀를 바랄쏘냐?

00:28:05.899 --> 00:28:10.050
부귀를 바랄쏘냐 이런 것들이 바로
편집자적 논평입니다, 여러분.

00:28:10.150 --> 00:28:11.885
서술자가 개입하는 거죠.

00:28:11.985 --> 00:28:13.905
이건 좀 참고로 제가
설명 하나 드릴게요.

00:28:14.005 --> 00:28:15.412
이쪽으로 옵니다.

00:28:15.512 --> 00:28:20.182
우리 고전에서 여러분, 서술자
개입이라고 하는 거 있죠.

00:28:20.282 --> 00:28:23.844
편집자적 논평이라고

하는 게 있습니다.

00:28:23.944 --> 00:28:27.520
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것을
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

00:28:27.620 --> 00:28:28.865
꽤 있는데요.

00:28:28.965 --> 00:28:31.581
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
공식처럼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

00:28:31.681 --> 00:28:36.556
제일 첫 번째는 설의적 표현으로
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.

00:28:36.656 --> 00:28:37.967
설의적 표현.

00:28:38.067 --> 00:28:46.100
예를 들어서 어찌 ~랴,
~인가, ~인고, ~하리

00:28:46.200 --> 00:28:48.256
이런 식으로 나타나는
경우가 많아요.

00:28:48.356 --> 00:28:52.314
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상적
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.

00:28:52.414 --> 00:28:55.536
회상적 표현은 ~하더라
이렇게 나타나면

00:28:55.636 --> 00:28:57.545
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는 거죠.

00:28:57.645 --> 00:29:02.144
세 번째는 감탄형 표현으로
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00:29:02.244 --> 00:29:06.798
감탄형 표현은 ~하는구나
이렇게 나타나는 거죠.

00:29:06.898 --> 00:29:11.003
네 번째는 확인적
표현이라고 하는 건데요.

00:29:11.103 --> 00:29:19.624
확인적 표현은 뭐냐면 ~것다,
~렸다, ~보소 이런 것들

00:29:19.724 --> 00:29:20.897
들어본 적 있죠?

00:29:20.997 --> 00:29:24.076
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서술자가
개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29:24.176 --> 00:29:27.655
그럼 이쪽에 보면 마음이
이러하매 부귀를 바랄쏘냐?

00:29:27.755 --> 00:29:29.250
설의법이잖아요.

00:29:29.350 --> 00:29:31.558
그러면 이 설의법을
통해서 편집자적 논평,

00:29:31.658 --> 00:29:33.739
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.

00:29:33.839 --> 00:29:38.572
흥부 아내 하는 말이, 애고
여봅소, 부질없는 청렴 맙소.

00:29:38.672 --> 00:29:40.884
뭘 그렇게 깨끗하려고 해.

00:29:40.984 --> 00:29:45.850
안자의 가난함은 주린 염치로
서른에 일찍 죽었고.

00:29:45.950 --> 00:29:49.998
안자는 어떤 중국 고사에
인용된 사람입니다.

00:29:50.098 --> 00:29:52.134
안자의 가난함은 주린 염치로.

00:29:52.234 --> 00:29:57.841
너무 굶주려서 그 염치 때문에
서른에 일찍 죽었어요.

00:29:57.941 --> 00:30:00.719
너무 염치 없어서 일찍
죽어버렸다는 거죠.

00:30:00.819 --> 00:30:05.891
백이숙제는 은나라가 망하고
주나라가 들어서니까

00:30:05.991 --> 00:30:08.737
수양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
고사리만 캐어 먹다가

00:30:08.837 --> 00:30:10.717
굶어 죽은 애들이거든요.

00:30:10.817 --> 00:30:14.095
그러니까 백이숙제 같은 경우는
지조, 절개를 나타내는

00:30:14.195 --> 00:30:15.676
그런 인물들이에요.

00:30:15.776 --> 00:30:21.763
주린 염치로 청루 소년이 웃었으니,

누각의 소년들이 웃었고요.

00:30:21.863 --> 00:30:25.390
부질없는 청렴하지 말고 저
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

00:30:25.490 --> 00:30:28.818
아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
되나 벼가 되나 얻어 옵소.

00:30:28.918 --> 00:30:31.840
아주버님이 바로 누구냐면
놀부네 집입니다, 놀부예요.

00:30:31.940 --> 00:30:34.565
여러분, 이런 것들이 바로
고전이 좀 어려운데.

00:30:34.665 --> 00:30:36.022
고사가 인용된 거 있잖아요.

00:30:36.122 --> 00:30:39.435
안자의 가난함은, 백이숙제는
청루 소년이 웃었으니

00:30:39.535 --> 00:30:41.598
여기까지 괄호 쳐볼게요.

00:30:41.698 --> 00:30:43.431
이런 것들은 그냥
괄호 쳐놓으시고요.

00:30:43.531 --> 00:30:45.470
뭘 말하려고 하는지만
보시면 됩니다.

00:30:45.570 --> 00:30:48.548
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 얘기는
뭘 얘기하기 위한 거냐면

00:30:48.648 --> 00:30:52.214
부질없는 청렴 하지
마세요, 부질없어요.

00:30:52.314 --> 00:30:54.149
애들이 다 굶어 죽는데요.

00:30:54.249 --> 00:30:57.256
이런 얘기를 아내가 하고 싶은 거구나
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.

00:30:57.356 --> 00:31:00.476
이 중국 고사 모른다고 해서 시험
문제 절대 틀리는 건 아닌데

00:31:00.576 --> 00:31:03.956
학생들이 딱 받아들이는
순간 몰라요, 어려워요,

00:31:04.056 --> 00:31:06.301
고전 소설 너무 어려워요,

이렇게 생각한다고?

00:31:06.401 --> 00:31:07.806
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.

00:31:07.906 --> 00:31:12.380
어떻게 하냐면 딱 괄호 쳐놓고
뭘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.

00:31:12.480 --> 00:31:15.975
결국 아내가 말하고자 하는
핵심 내용은 바로 뭐냐면

00:31:16.075 --> 00:31:24.162
아주버님 댁 가서 먹을 것 좀 구해
오세요,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

00:31:24.262 --> 00:31:28.398
흥부가 하는 말이 형님이 음식
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 보고

00:31:28.498 --> 00:31:31.940
똥 싸도록 때리는데, 똥
싸도록 막 때려요.

00:31:32.040 --> 00:31:34.289
그 매를 뉘 아들놈이
맞는단 말이요.

00:31:34.389 --> 00:31:36.017
나는 매가 무서워서 못 가요.

00:31:36.117 --> 00:31:38.849
애고 동냥은 못 준들
쪽박조차 깨칠쏜가.

00:31:38.949 --> 00:31:42.352
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
본다고 건너가 봅소.

00:31:42.452 --> 00:31:44.078
그래도 한번 가보세요.

00:31:44.178 --> 00:31:46.776
우리 아이들 다 굶어
죽어요, 이런 뜻입니다.

00:31:46.876 --> 00:31:48.802
뒤에 나오는 2번 문제를 가볼까요?

00:31:48.902 --> 00:31:51.087
[A]~[C]에 대한 이해로
적절하지 않은 건데.

00:31:51.187 --> 00:31:55.619
[A]는 보면 서술자의 서술과
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서

00:31:55.719 --> 00:32:01.421
흥부의 처지와 성품을 드러내고
있다고 했는데, 볼까요?

00:32:01.521 --> 00:32:06.638
아까 앞에서는 흥부의 처음에
인후하여라고 하는 게

00:32:06.738 --> 00:32:08.585
서술자가 직접 얘기해주고 있잖아요.

00:32:08.685 --> 00:32:10.593
마음이 이러하며 부귀를 바랄쏘냐.

00:32:10.693 --> 00:32:12.635
서술자가 직접 개입한
부분도 있고요.

00:32:12.735 --> 00:32:15.888
그다음에 대화 부분을 보니까,
흥부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서

00:32:15.988 --> 00:32:20.169
자식들까지 다 굶어 죽이는구나,
굶겨 죽일 정도로 가난하구나.

00:32:20.269 --> 00:32:23.909
그다음에 성품도 좀 무서워하고
이런 성품도 나타나 있죠.

00:32:24.009 --> 00:32:27.580
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적절합니다.

00:32:27.680 --> 00:32:31.702
그다음에 넘어갈게요.

00:32:31.802 --> 00:32:34.226
2번 됐고요.

00:32:34.326 --> 00:32:39.769
흥부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
건너갈 제, 치장을 볼작시면.

00:32:39.869 --> 00:32:43.177
이제 겉치장 이렇게 하고
갔는지를 볼작시면, 본다면.

00:32:43.277 --> 00:32:44.209
가봅니다.

00:32:44.309 --> 00:32:46.583
여기 이제 ㉠에 대한
문제도 뒤에 나왔어요.

00:32:46.683 --> 00:32:50.248
편자 없는 헌 망건에, 편자라고
하는 게 뭡니까, 여러분?

00:32:50.348 --> 00:32:53.348
어떤 망건이라고 하는 건 갓
쓸 때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

00:32:53.448 --> 00:32:56.910
편자라고 하는 것은 좁고

두껍게 짠 띠라고 하는데

00:32:57.010 --> 00:33:01.268
이 띠도 없이 그냥 허름한
옷차림이야, 허름한 옷차림이에요.

00:33:01.368 --> 00:33:06.754
헌 망건에 박쪼가리 관자를 달고,
박쪼가리가 만든 관자를 달고.

00:33:06.854 --> 00:33:11.642
물렛줄로 당끈 달아서
대가리 터지게 동이고.

00:33:11.742 --> 00:33:14.074
대가리 터지게 확
묶었다는 얘기예요.

00:33:14.174 --> 00:33:18.402
깃만 남은 중치막, 동강 이은
헌술띠를 흉복통에 둘러매고.

00:33:18.502 --> 00:33:21.259
뭔가 이렇게 둘러맸는데 다
너덜너덜하고 이런 거야.

00:33:21.359 --> 00:33:23.008
그냥 그렇게만 보면 돼요.

00:33:23.108 --> 00:33:27.412
떨어진 헌 고의에 칡 노끈 대님
매고, 헌 고의적삼이라고 해서

00:33:27.512 --> 00:33:31.989
바지 이런 데에 대님이 비단 같은
거나 천으로 이렇게 되는데.

00:33:32.089 --> 00:33:35.039
칡 노끈으로 대님 매고,
헌 짚신 감발하고.

00:33:35.139 --> 00:33:38.891
짚신에 묶어서 이렇게 짚신이
벗겨지지 않게 묶어 놓은 거고.

00:33:38.991 --> 00:33:43.671
세살부채 손에 쥐고, 서 홉들이
오망자루 꽁무니에 비슥하게 차고.

00:33:43.771 --> 00:33:45.778
뭔가 이제 물건 담을 걸 차고.

00:33:45.878 --> 00:33:48.776
바람 맞는 병인 같이, 병자 같이.

00:33:48.876 --> 00:33:52.756
잘 쓰는 대비 같이, 대비,
빗자루인 것 같죠?

00:33:52.856 --> 00:33:57.551
어슥비슥 건너 달아라고

건너서 가고 있어요.

00:33:57.651 --> 00:34:00.550
묘사 부분이 쓰인 거죠, 묘사
부분이 쓰였고 1번 볼게요.

00:34:00.650 --> 00:34:04.856
1번 보면 운문체를
사용하여라고 되어 있는데.

00:34:04.956 --> 00:34:08.144
운문체는 뭐냐면 여러분,
운율이 있는 문체예요.

00:34:08.244 --> 00:34:14.441
여기에서는 운율감이 편자 없는
헌 망건에 박쪼가리 관자 달고

00:34:14.541 --> 00:34:17.196
물렛줄로 당끈 달아
대가리 터지게 동이고.

00:34:17.296 --> 00:34:22.076
굳이 찾으면 보통 이제 운문체라고
하면 4음보가 나오는 경우가

00:34:22.176 --> 00:34:23.046
되게 많아요.

00:34:23.146 --> 00:34:27.465
그러니까 4번을 끊으면 그게 바로
4번 이렇게 4어절 정도로 이렇게

00:34:27.565 --> 00:34:31.522
끊으면 운율감이 느껴지는데, 여기에서
운율감은 잘 나타나지 않고요.

00:34:31.622 --> 00:34:33.242
그냥 열거만 되어 있고요.

00:34:33.342 --> 00:34:37.071
또 하나는 뭐가 확실하냐면 인물
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는 게

00:34:37.171 --> 00:34:38.699
확실하게 틀린 거죠.

00:34:38.799 --> 00:34:40.715
2번, 현재와 과거 교차 없죠.

00:34:40.815 --> 00:34:42.658
지금 현재 모습만 나와 있으니까.

00:34:42.758 --> 00:34:44.002
열거 방식이죠?

00:34:44.102 --> 00:34:47.233
인물의 모습들이 열거가
되어 있는데.

00:34:47.333 --> 00:34:49.893

외향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.

00:34:49.993 --> 00:34:51.574
해학성이 나타납니다, 여러분.

00:34:51.674 --> 00:34:54.602
해학성이라고 하면 얘가 옷
입은 모양들이 전부 다

00:34:54.702 --> 00:34:58.996
갖춰서 옷 입은 것이 아니라
칡 덩굴로 끈 매고 말이야.

00:34:59.096 --> 00:35:06.824
헌 짚신을 막 겨우, 이렇게
옷차림을 보면 너무 불쌍하다

00:35:06.924 --> 00:35:08.644
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.

00:35:08.744 --> 00:35:12.553
그리고 옷을 칡 덩굴이
여기 있고 이런 모습들이

00:35:12.653 --> 00:35:15.178
바로 이제 해학적인 모습이
드러납니다, 여러분.

00:35:15.278 --> 00:35:16.376
설명했죠?

00:35:16.476 --> 00:35:20.551
해학과 풍자의 차이점은
해학은, 설명했어요.

00:35:20.651 --> 00:35:23.538
해학은 연민의 정서가
내포되어 있는 거고요.

00:35:23.638 --> 00:35:28.459
그다음에 풍자는 공격성이 내포되어
있다,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습니다.

00:35:28.559 --> 00:35:30.866
4번은 배경 묘사 없고요.

00:35:30.966 --> 00:35:36.626
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서사를
빠르게 전개한 게 아니라

00:35:36.726 --> 00:35:38.335
묘사가 쓰였죠.

00:35:38.435 --> 00:35:40.552
묘사는 아예 사건이 정지된 겁니다.

00:35:40.652 --> 00:35:41.966
사건이 정지되고요.

00:35:42.066 --> 00:35:44.707
막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

갑자기 사건이 멈춘 거예요.

00:35:44.807 --> 00:35:46.870
그 사람의 외양만 묘사된 거니까

00:35:46.970 --> 00:35:50.517
사건이 빠르게 전개된다는
게 틀렸습니다.

00:35:50.617 --> 00:35:52.556
형의 집에 들어갔습니다.

00:35:52.656 --> 00:35:59.575
전후좌우를 바라보니까 앞노적,
뒷노적, 멍에 노적.

00:35:59.675 --> 00:36:03.121
노적은 이렇게 뭔가 물건이 쌓여
있는 걸 노적이라고 합니다.

00:36:03.221 --> 00:36:06.521
담불담불 쌓였으니, 아무튼 잘
몰라도 뭔가 쌓여 있어요.

00:36:06.621 --> 00:36:12.365
흥부 마음 즐거우나 놀부 심사 무거하여,
놀부 심사를 알 수가 없어서.

00:36:12.465 --> 00:36:15.360
형제끼리 내외하여,
멀리 떨어져 지냈죠.

00:36:15.460 --> 00:36:17.982
구박이 태심하니,
구박이 매우 심하니.

00:36:18.082 --> 00:36:20.230
흥부가 하릴없어, 어쩔 수 없어.

00:36:20.330 --> 00:36:23.163
뜰 아래서 문안하니,
문안 인사를 드려요.

00:36:23.263 --> 00:36:26.762
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뉜고?

00:36:26.862 --> 00:36:29.399
내가 흥부요, [B] 부분이죠.

00:36:29.499 --> 00:36:30.761
내가 흥부요.

00:36:30.861 --> 00:36:32.208
흥부가 뉘 아들인가?

00:36:32.308 --> 00:36:34.974
몰라보는 거 아니죠,
몰라보는 척하는 거죠.

00:36:35.074 --> 00:36:36.929
애고 형님, 이것이 웬 말이오?

00:36:37.029 --> 00:36:38.462
비옵니다, 형님 전에 비옵니다.

00:36:38.562 --> 00:36:41.455
세 끼 굶어 누운 자식
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

00:36:41.555 --> 00:36:46.155
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
주신다면 품을 판들 못 갚으며,

00:36:46.255 --> 00:36:48.129
제가 품 팔아서 갚을게요.

00:36:48.229 --> 00:36:49.741
일을 한들 못 갚을까.

00:36:49.841 --> 00:36:52.686
부디 옛일을 생각해서 사람을
살려주세요라고 빌고 있죠.

00:36:52.786 --> 00:36:56.284
애걸하니, 놀부 놈의 거동 보소.

00:36:56.384 --> 00:36:58.953
판소리적 문체, 이게
서술자 개입된 겁니다.

00:36:59.053 --> 00:37:02.936
성난 눈을 부릅뜨고 볼을 치며
호령하되, 너도 염치없다.

00:37:03.036 --> 00:37:04.696
내 말을 들어 봐라.

00:37:04.796 --> 00:37:08.777
하늘은 녹 없는 사람을
내지 않으며, 이런 거죠.

00:37:08.877 --> 00:37:11.069
하늘이 자기가 먹을 걸
내준다 이런 거죠.

00:37:11.169 --> 00:37:16.863
하늘이 사람을 낼 때 자기 먹을 거는
타고나게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.

00:37:16.963 --> 00:37:20.109
내지 않으며, 땅은 이름
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.

00:37:20.209 --> 00:37:22.838
네 복을 누굴 주고
나를 이렇게 보채느냐.

00:37:22.938 --> 00:37:25.747
네 복이야, 어쩔 수
없는 네가 한 거야.

00:37:25.847 --> 00:37:30.875

쌀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 헐며,
쌀더미 그거를 너 조금 주자고

00:37:30.975 --> 00:37:33.536
다 잘 쌓아놓은 걸 그걸
헐어야 돼, 이런 뜻이에요.

00:37:33.636 --> 00:37:35.267
정말 나쁜 놈이죠.

00:37:35.367 --> 00:37:37.531
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
주자고 섬을 헐며,

00:37:37.631 --> 00:37:41.038
볏섬을 그거 다 잘 묶어놨는데 그걸
다 헐어 너 때문에, 이런 거예요.

00:37:41.138 --> 00:37:44.306
돈이 많이 있다 한들 궤에
가득 든 것을 문을 열어?

00:37:44.406 --> 00:37:47.547
문 열기가 얼마나 힘든데 너를
주겠니, 이런 뜻이에요.

00:37:47.647 --> 00:37:49.058
됐습니까?

00:37:49.158 --> 00:37:51.262
그럼 2번 문제 [B]를 볼까요?

00:37:51.362 --> 00:37:55.427
놀부를 놀부 놈으로 서술하는
부분에서는, 놀부 놈이라고 얘기했니?

00:37:55.527 --> 00:37:57.921
놀부 놈이라고 서술한
부분이 여기 있다.

00:37:58.021 --> 00:38:01.151
놀부 놈의 거동 보소,
여기 나왔었죠.

00:38:01.251 --> 00:38:04.480
서술한 부분에서는 인물에 대한
서술자의 평가가 나타나 있다.

00:38:04.580 --> 00:38:07.094
당연하죠, 서술자의
평가가 있습니다.

00:38:07.194 --> 00:38:08.713
4번 선택지를 볼까요.

00:38:08.813 --> 00:38:13.108
4번 선택지 보면 [A]에서
흥부와 흥부의 아내의 대화는

00:38:13.208 --> 00:38:15.436
가세요, 무서워 못 가요,

이런 내용이었잖아요.

00:38:15.536 --> 00:38:18.825
[B]에서 일어나는 흥부와 놀부의
갈등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.

00:38:18.925 --> 00:38:22.938
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
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죠.

00:38:23.038 --> 00:38:25.079
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.

00:38:25.179 --> 00:38:28.095
어렵게 살던 흥부는 어느 날
구렁이의 습격을 받아 다리가 부러진

00:38:28.195 --> 00:38:31.004
제비 새끼를 구해 주고 박씨를
얻어서 큰 부자가 됩니다.

00:38:31.104 --> 00:38:33.079
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.

00:38:33.179 --> 00:38:34.091
갑니다.

00:38:34.191 --> 00:38:36.238
놀부 놈의 거동 보소.

00:38:36.338 --> 00:38:39.282
아까 우리가 3번 문제 봤던 그
이야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.

00:38:39.382 --> 00:38:43.052
동지섣달부터 제비를
기다립니다, 제비를 기다리죠.

00:38:43.152 --> 00:38:48.128
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욕심이 난
거잖아, 그 정도로 충분할 텐데.

00:38:48.228 --> 00:38:49.921
제비를 기다린다.

00:38:50.021 --> 00:38:53.298
그물 막대를 둘러메고 제비를
몰러 가는 거예요.

00:38:53.398 --> 00:38:55.808
제비 몰러 나간다, 이건
거 같아요, 그렇죠?

00:38:55.908 --> 00:38:58.065
그 제비를 몰러 가고
있는 거예요, 왜?

00:38:58.165 --> 00:39:01.864
제비가 떨어져야지만 뭐 하는 거냐면
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,

00:39:01.964 --> 00:39:03.188
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.

00:39:03.288 --> 00:39:06.146
한 곳을 바라보니 한 짐승이
떠서 들어오니 놀부 놈이 보고

00:39:06.246 --> 00:39:10.449
제비가 이제 온다 하고 보니
태백산 갈가마귀입니다.

00:39:10.549 --> 00:39:14.809
갈가마귀 차돌도 못 얻어먹고
굶주려, 주려는 굶주려.

00:39:14.909 --> 00:39:20.136
청천에 높이 떠서, 하늘 높이
떠서 갈곡갈곡 울고 가니.

00:39:20.236 --> 00:39:22.873
잘 보세요, 재미있습니다,
저만 재미있나요?

00:39:22.973 --> 00:39:26.847
갈가마귀가 갈곡갈곡, 언어유희
이런 면모도 나타나 있어요.

00:39:26.947 --> 00:39:30.861
갈곡갈곡 울고 가니 놀부
눈을 멀겋게 뜨고 보다가

00:39:30.961 --> 00:39:33.518
하릴없어, 어쩔 수
없어 이런 뜻입니다.

00:39:33.618 --> 00:39:37.746
동네 집으로 다니면서 제비를 제 집으로
몰아들이되 제비가 아니 온다.

00:39:37.846 --> 00:39:40.006
제비가 와야 되는데, 그렇죠?

00:39:40.106 --> 00:39:43.659
그달 저 달 다 지내고
삼월 삼일 다다르니.

00:39:43.759 --> 00:39:49.750
아까 나왔던 문제, 굵은 글씨가
동지섣달, 갈가마귀, 삼월 삼일.

00:39:49.850 --> 00:39:52.882
이게 3번 문제
풀 때 필요한가 봐요.

00:39:52.982 --> 00:39:56.735
삼월 삼일에 다다르니, 삼짇날이라고
해서 제비가 이제 와야 되는,

00:39:56.835 --> 00:39:58.391
떠나는 건가?

00:39:58.491 --> 00:40:00.644
제비가 떠나는 날인가
그럴 거예요, 아마.

00:40:00.744 --> 00:40:03.199
강남서 나온 제비,
오는 날인가 보다.

00:40:03.299 --> 00:40:06.793
강남서 나온 제비, 강남은 지금
이렇게 도곡동 이런 강남이 아니죠.

00:40:06.893 --> 00:40:08.608
강 아래쪽 따뜻한 곳입니다.

00:40:08.708 --> 00:40:12.598
제비 옛집을 찾으려고 오락가락
넘놀 적에 놀부 사면에

00:40:12.698 --> 00:40:15.228
제비 집을 지어 놓고,
제비를 모아야죠.

00:40:15.328 --> 00:40:18.945
제비를 들이모니 그중 팔자
사나운, 왜 팔자 사나워?

00:40:19.045 --> 00:40:21.578
놀부한테 걸렸으니까
팔자 사나운 놈이지.

00:40:21.678 --> 00:40:25.409
제비 하나가 놀부 집에 흙을
물어 집을 짓고 알을 낳아

00:40:25.509 --> 00:40:30.084
안으려고 할 때 놀부 놈이
주야로 제비 집 앞에 대령하여

00:40:30.184 --> 00:40:32.247
언제 떨어지나 이것만
보고 있는 거죠.

00:40:32.347 --> 00:40:35.871
대령하여 가끔가끔 만져
보니 알이 다 곯았어요.

00:40:35.971 --> 00:40:38.817
알이 다 곯았다는 얘기는
새끼가 안 나오는 거예요.

00:40:38.917 --> 00:40:40.369
새끼가 떨어져야 되는데.

00:40:40.469 --> 00:40:41.854
다만 하나 깨었는지라.

00:40:41.954 --> 00:40:45.579
다 곯았어, 그러니까
썩었다는 얘기예요.

00:40:45.679 --> 00:40:47.448
다 썩었어.

00:40:47.548 --> 00:40:48.848
하나만 딱 깼단 말이야.

00:40:48.948 --> 00:40:55.725
날기 공부 힘들 때, 날기
공부한다는 얘기는 제비가,

00:40:55.825 --> 00:40:57.518
제비 새끼가 날아야 되잖아요.

00:40:57.618 --> 00:41:02.950
날기 공부 힘쓸 때 구렁 배암
아니 오니, 뱀이 와야죠.

00:41:03.050 --> 00:41:04.750
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어야
되잖아, 그렇지?

00:41:04.850 --> 00:41:08.066
뱀이 와서 떨어졌더니 그
떨어진 애가 다리를 다쳐서

00:41:08.166 --> 00:41:11.181
묶어줬더니 뭐 물고
왔더라 이런 거니까.

00:41:11.281 --> 00:41:15.860
구렁 배암 아니 오니 놀부
민망하고 답답해, 어떡하지?

00:41:15.960 --> 00:41:17.800
뱀이 와야 되는데?

00:41:17.900 --> 00:41:21.243
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
손으로, 자기 손으로

00:41:21.343 --> 00:41:24.323
제비 새끼를 잡아 내려서 두
발목을 자끈 부러뜨리고.

00:41:24.423 --> 00:41:25.710
나쁜 놈, 그렇죠?

00:41:25.810 --> 00:41:27.215
자기가 부러뜨린 거예요, 그냥.

00:41:27.315 --> 00:41:29.206
이거 돈 벌어야지 이러면서
부러뜨린 거예요.

00:41:29.306 --> 00:41:32.580
자기가 깜짝 놀라, 이거
너무 해학적이지 않니?

00:41:32.680 --> 00:41:35.528
자기가 딱 부러뜨리고 자기
스스로 깜짝 놀라면서

00:41:35.628 --> 00:41:38.422
아유, 불쌍해, 가련하다
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.

00:41:38.522 --> 00:41:45.005
이 제비야 하고 조기 껍질을 얻어
찬찬 동여 뱃놈의 닻줄을 감듯,

00:41:45.105 --> 00:41:50.073
뱃놈이 닻줄을 감아 올리듯
삼층 얼레 연줄 감듯 하여

00:41:50.173 --> 00:41:56.935
자기 집에 얹어 두었더니, 즉 제비를
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다음에

00:41:57.035 --> 00:42:00.618
아이고, 가련하다 그러면서
이렇게 해주는 거죠.

00:42:00.718 --> 00:42:05.752
해준 다음에 괜찮아, 이러면서
제비 집에 올려준 거죠.

00:42:05.852 --> 00:42:10.910
십여일 뒤에 그 제비가 구월
구일을 당하여 두 날개를 펼쳐

00:42:11.010 --> 00:42:13.389
강남으로 들어가니, 강남 갑니다.

00:42:13.489 --> 00:42:16.250
가서 이제 선물 갖다줘야 되잖아요.

00:42:16.350 --> 00:42:20.520
그런데 강남 황제 각처
제비를 점고할 제.

00:42:20.620 --> 00:42:23.695
이제 여기에서, 이게 무슨 얘기냐?

00:42:23.795 --> 00:42:24.959
강남으로 돌아갔어요.

00:42:25.059 --> 00:42:27.770
그러니까 강남의 황제 각처 제비를.

00:42:27.870 --> 00:42:34.593
각처, 각 장소에 있던 제비들을
점고할 때, 점고가 무슨 뜻입니까?

00:42:34.693 --> 00:42:36.980
점고할 때, 사람의 수를 조사.

00:42:37.080 --> 00:42:39.876
누구 왔니, 누구 왔니
이렇게 조사를 하나 봐요.

00:42:39.976 --> 00:42:41.669
전기적인 요소가 있죠.

00:42:41.769 --> 00:42:46.872
점고할 때 이 제비가 다리 절면서
들어와서 복지하니, 엎드리니

00:42:46.972 --> 00:42:52.119
황제가 제신으로 하여금, 제비
황제예요, 제비 세계예요.

00:42:52.219 --> 00:42:55.040
제비 황제가 제신으로
하여금, 여러 신하로 하여금

00:42:55.140 --> 00:42:58.071
그 연고를 사실하여 아뢰라.

00:42:58.171 --> 00:43:01.960
재 왜 저러냐, 그 이유를
아뢰어라 하시니 제비가 아뢰되.

00:43:02.060 --> 00:43:06.996
작년에 웬 박씨를 내어 보내어
흥부가 부자가 되었다 하여서

00:43:07.096 --> 00:43:11.069
그 형 놀부 놈이 나를 여차
여차하여, 여차 여차하다는 얘기는

00:43:11.169 --> 00:43:13.234
앞에서 다 나온
내용이잖아, 그렇지?

00:43:13.334 --> 00:43:15.445
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
않으려고 여차 여차합니다.

00:43:15.545 --> 00:43:19.925
절뚝발이가 되게 하였사오니, 이
원수를 어찌 갚고자 하나이다.

00:43:20.025 --> 00:43:21.631
원수 갚아야죠.

00:43:21.731 --> 00:43:24.533
황제가 이 말을 들으시고
대경하사 가라사대,

00:43:24.633 --> 00:43:27.900
이놈 이제 전답 재물이
여유롭되 동기를 모르고,

00:43:28.000 --> 00:43:33.745
동기는 같을 동 자에 가지예요.

00:43:33.845 --> 00:43:36.991
같은 기운에서 나온 거니까
형제를 뜻합니다.

00:43:37.091 --> 00:43:41.105
동기를 모르고 오륜에 벗어난
놈을 그저 두지 못할 것이요.

00:43:41.205 --> 00:43:45.359
또한 네 원수를 갚아주리라
하고 박씨 하나를 보수표라

00:43:45.459 --> 00:43:48.448
금자로 새겨서 주더라,
보수표가 뭡니까?

00:43:48.548 --> 00:43:53.498
원수를 갚는 박이라고
새겨서 보내준 거죠.

00:43:53.598 --> 00:43:54.943
이런 이야기입니다.

00:43:55.043 --> 00:43:58.627
그러면 문제를 한번 가보기
전에 지문 소화제 보겠습니다.

00:43:58.727 --> 00:44:01.802
흥부는 놀부에게 간청하면 음식을 얻을
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.

00:44:01.902 --> 00:44:02.995
아닙니다.

00:44:03.095 --> 00:44:04.571
두려워하면서 갔잖아요, X죠.

00:44:04.671 --> 00:44:07.799
놀부는 구렁이를 집안으로 끌어들여
제비의 다리가 부러지게 한다.

00:44:07.899 --> 00:44:09.283
구렁이가 안 왔죠.

00:44:09.383 --> 00:44:11.166
스스로 부러뜨린 거니까 X.

00:44:11.266 --> 00:44:14.008
흥부는 초라해도 양반의
행색을 갖추려고 합니다.

00:44:14.108 --> 00:44:16.637
아까 옷 갖춰 입은 부분 있죠?

00:44:16.737 --> 00:44:18.252
양반처럼 이렇게 입으려고 합니다.

00:44:18.352 --> 00:44:20.730
그래서 몰락한 양반을
상징하는 내용도 있어요.

00:44:20.830 --> 00:44:23.021
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00:44:23.121 --> 00:44:24.771
아까 했던 3번이 정답이었죠.

00:44:24.871 --> 00:44:28.611

3번 보면 열거의 방식으로 인물의
외양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
00:44:28.711 --> 00:44:29.850
맞습니다.

00:44:29.950 --> 00:44:32.248
[A]~[C]에 대한 이해로
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.

00:44:32.348 --> 00:44:34.890
우리가 아까 [A],
[B]까지는 다 봤고요.

00:44:34.990 --> 00:44:36.390
[C]를 볼까요?

00:44:36.490 --> 00:44:38.359
[C]에서 동물들이
대화하는 장면입니다.

00:44:38.459 --> 00:44:40.163
황제 제비가 얘기하고 있죠.

00:44:40.263 --> 00:44:41.774
우화적 공간입니다.

00:44:41.874 --> 00:44:45.211
의인화해서 동물들의 이야기가
나타나 있는 거니까

00:44:45.311 --> 00:44:47.537
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
보여준다, 맞고요.

00:44:47.637 --> 00:44:48.972
4번도 아까 맞았죠.

00:44:49.072 --> 00:44:50.206
5번 볼까요?

00:44:50.306 --> 00:44:53.091
[B]에 나타난 놀부의 언행은
[C]에서 제비가 황제에게

00:44:53.191 --> 00:44:57.132
놀부를 고발하는 근거가 된다라고
되어 있는데, 이게 틀렸어요.

00:44:57.232 --> 00:45:01.538
왜 그러냐면 놀부가 흥부에게
심술궂게 했다는 것을

00:45:01.638 --> 00:45:04.045
이 제비가 고한 건 아니죠.

00:45:04.145 --> 00:45:07.225
제비가 말한 건 자기의 다리를
부러뜨린 것만 얘기하고 있지

00:45:07.325 --> 00:45:11.038

놀부가 자기 동생한테 막
그랬대요, 혼내주세요.

00:45:11.138 --> 00:45:12.533
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

00:45:12.633 --> 00:45:15.520
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
정답이 됩니다.

00:45:15.620 --> 00:45:18.495
자기 다리 부러뜨린 것을
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.

00:45:18.595 --> 00:45:21.397
3번 문제,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00:45:21.497 --> 00:45:23.034
1번 볼까요?

00:45:23.134 --> 00:45:28.614
동지섣달부터 올 리 없는
제비를 찾는 놀부의 행동은

00:45:28.714 --> 00:45:31.946
보기의 1단계에 속하는
것으로, 1단계가 뭐죠?

00:45:32.046 --> 00:45:33.775
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고.

00:45:33.875 --> 00:45:38.170
제비 다리를 고쳐주는
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,

00:45:38.270 --> 00:45:41.879
욕망 실현을 위한 놀부의
조급성을 보여주고 있다.

00:45:41.979 --> 00:45:47.807
그렇죠, 동지섣달은 한겨울인데 제비가
올 리가 없잖아요, 그렇죠?

00:45:47.907 --> 00:45:58.098
갈가마귀를 제비로 착각하는 놀부의
모습은, 어디 나왔습니까?

00:45:58.198 --> 00:45:59.762
갈가마귀 마지막 부분에 나왔죠?

00:45:59.862 --> 00:46:01.635
제비 보기의 1단계에 속하는
것으로 제비 이제 온다 하고

00:46:01.735 --> 00:46:03.820
태백산 갈가마귀 차돌도
못 얻어먹고 주려,

00:46:03.920 --> 00:46:05.764
여기로 왔단 말이에요, 그렇죠?

00:46:05.864 --> 00:46:11.916
그러면 보기의 1단계에 속하는
것으로 제비가 아닌 다른 새들을

00:46:12.016 --> 00:46:15.706
몰아내는 놀부의 적극적 행동을
보여주는군이라고 되어 있는데.

00:46:15.806 --> 00:46:20.608
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갈가마귀를
몰아내는 부분이 있었나요?

00:46:20.708 --> 00:46:22.356
다시 앞으로 가야겠네요.

00:46:22.456 --> 00:46:24.490
7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.

00:46:24.590 --> 00:46:29.239
태백산 갈가마귀 차돌도 못
얻어먹고 주려 청천에 높이 떠

00:46:29.339 --> 00:46:32.629
갈곡갈곡 울고 가니, 놀부
눈을 멀겋게 뜨고 보다가

00:46:32.729 --> 00:46:35.985
어쩔 수 없이 동네 집으로
다니면서 제비를 몰아오는 거니까

00:46:36.085 --> 00:46:41.664
다른 새들을 몰아내고 있는, 즉 갈가마귀를
몰아내고 있는 모습이 없었죠.

00:46:41.764 --> 00:46:45.248
그러니까 정답이 틀렸네요, 그렇죠?

00:46:45.348 --> 00:46:49.580
됐어요, 그다음에 삼월 삼일에
제비를 들이모는 놀부의 행위는

00:46:49.680 --> 00:46:52.776
보기 1단계에 속하는 것으로
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

00:46:52.876 --> 00:46:55.567
악의적인 모방자의 모습이다, 맞죠.

00:46:55.667 --> 00:46:58.546
강남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보기의
2단계에 속하는 것으로.

00:46:58.646 --> 00:47:01.129
2단계가 보상을 기대하고
있는 거잖아요.

00:47:01.229 --> 00:47:04.304
상황에 개입할 수 없는 놀부가 기다릴
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.

00:47:04.404 --> 00:47:05.553

맞습니다.

00:47:05.653 --> 00:47:09.469
보수표가 제비에게 주어지는 상황은
보기의 2단계에 속하는 것으로.

00:47:09.569 --> 00:47:11.023
2단계가 뭐죠?

00:47:11.123 --> 00:47:13.461
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는
거니까 2단계는 맞죠.

00:47:13.561 --> 00:47:17.215
놀부의 기대와 달리 그의 욕망 실현이
좌절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.

00:47:17.315 --> 00:47:18.910
적절하겠죠.

00:47:19.010 --> 00:47:22.820
마지막 4번 ㉡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
가장 적절한 거 찾아라 그랬는데.

00:47:22.920 --> 00:47:24.580
일부러 부러뜨린 거잖아요.

00:47:24.680 --> 00:47:28.123
그 장면에 어울리는 속담을 한번
봐라, 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47:28.223 --> 00:47:32.142
깜짝 놀라다니 지렁이도 밟으면
꿈틀한다는 것은 뭐냐면

00:47:32.242 --> 00:47:37.263
약자도 건드리면 강자에게 대든다,
이런 뜻이니까 이건 틀렸고.

00:47:37.363 --> 00:47:40.298
자기 실수로 제비 다리가
부러졌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

00:47:40.398 --> 00:47:41.620
방귀 뀐 놈이 성낸다.

00:47:41.720 --> 00:47:44.754
자기 실수로 제비 다리가 부러진 게
아니라 일부러 부러뜨린 거죠.

00:47:44.854 --> 00:47:48.408
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
것도 틀렸죠.

00:47:48.508 --> 00:47:51.668
자기가 구렁이를 대신해서 제비
다리를 부러뜨린 것을 보니

00:47:51.768 --> 00:47:55.088
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
것은 뭐냐면 큰 강자들의 싸움에

00:47:55.188 --> 00:47:57.165
약자가 오히려 피해를
본다는 뜻이니까 틀렸죠.

00:47:57.265 --> 00:48:00.182
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
놓고 치료를 해주며

00:48:00.282 --> 00:48:03.066
구해주는 척하다니 병 주고 약
준다, 정답 4번이네요, 그렇죠?

00:48:03.166 --> 00:48:06.202
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 것은
뭐냐면 해를 입힌 다음에

00:48:06.302 --> 00:48:09.245
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거니까 병
주고 약 준다는 게 적절하죠.

00:48:09.345 --> 00:48:12.114
자기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도리어
위로하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

00:48:12.214 --> 00:48:14.097
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.

00:48:14.197 --> 00:48:15.887
말의 소중함을 얘기하고
있다, 절대 아닙니다.

00:48:15.987 --> 00:48:19.532
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48:19.632 --> 00:48:25.121
여러분, 여기까지 시점하고 그다음에
서술 방식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.

00:48:25.221 --> 00:48:26.648
작품 2개 봤고요.

00:48:26.748 --> 00:48:30.486
고전 소설 특히 어려우실 텐데,
고전 소설은 아까 얘기했던

00:48:30.586 --> 00:48:33.352
고사 부분, 중국 고사 부분은
그냥 뛰어넘는 게 좋고요.

00:48:33.452 --> 00:48:36.055
등장인물이 무슨 말 하려는지만
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

00:48:36.155 --> 00:48:40.065
그 부분 하나 주목하시고, 시점과
서술 방식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

00:48:40.165 --> 00:48:44.070
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한적 전지적
작가 시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

00:48:44.170 --> 00:48:47.041
그걸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,
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48:47.141 --> 00:48:48.924
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

00:48:49.024 --> 00:48:50.161
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